

정부는 주 52시간을 전제로, 기업이 예외적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·지원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10.(목) 한국경제, “K원전 핵심 경쟁력 ‘공기 준수’ 주 52시간 규제에 발목 잡히나”

2. 설명 내용

- 기사에서 언급된 ‘신한울 원전 3·4호기 건설 현장’은 ’22년 계획 수립 시 공사기간을 70개월로 상정하고, ’24년 9월 착공 이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,
 - 주52시간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
-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인 주 52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면서,
 - 기업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,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, 일선 기업에서 필요한 경우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음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박노완 (044-202-7618) 김동환 (044-202-7982)